

1/11(화) 창세기 32-36장 졌지만 이겼다!

야곱은 에서와 싸름하여 장자권을 얻었습니다(25:27장).

라반과 싸름하여 아내와 자손, 재산을 얻었습니다(29-31장).

그런데 오늘 야곱은 압록 강에서 떨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(32:11).

야곱은 자수성가했지만 금의환향 할 <집>이 없었습니다.

본가인 가나안으로 가자니 형과의 관계가 걸립니다.

외가(처가)인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자니 장인과의 관계가 걸립니다.

싸름에서 이긴 줄 알았으나 실상 진 것입니다.

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약속을 기억합니다(32:9).

하나님이 아니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깨닫습니다.

그럼에도 야곱의 자아는 하나님 앞에 굽힐 줄 모릅니다(32:25).

하나님은 버티고 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엎드리게 하십니다.

야곱은 <이스라엘>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.

졌지만, 이겼다! 스스로 이기고자 했을 때 야곱은 졌습니다.

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매달릴 때 이기게 된 것입니다(32:26).

하나님은 야곱의 생명을 보전하시고(32:30), 형 에서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(33:10).

곤경에 처했을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야곱을 인도하십니다(34장, 35:5).

야곱과 그에 속한 모든 이들은 벤엘로 돌아갑니다.

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정결함과 새로움을 명령하십니다(35:2-4).

그곳에서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임을 확인받습니다(35:10-12).

외가(라반)와의 끈도 정리되고(35:8) 이삭의 날도 멈췄습니다(35:27-29).

어서의 집은 세일로 이주하여 야곱과 분리된 공동체를 이룹니다(36장).

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,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(35:23-26).

오늘 통독하면서 나는 누구와, 무엇을 위해 싸름하고 있는가? 묵상해 보십시오.

❶ 이겼지만 졌습니까, 졌지만 이겼습니까?

❷ 스스로 버티고 있습니까,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?